

부평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작성자 이희성(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2월 18일(목)

조회수 68

전화번호 032-509-6416

첨부파일 부평구_지속가능한_문화도시_구현_위한_종합발전계획_수립.jpg [2MByte]
 부평구_지속가능한_문화도시_구현_위한_종합발전계획_수립3.jpg [1MByte]

전체다운



부평구_지속가능한_문화도시_구현_위한_종합발전계획_수립.jpg (2M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_지속가능한_문화도시_구현_위한_종합발전계획_수립3.jpg (1M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국가 지정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1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부평구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지정 문화도시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문화도시의 방향과 지침 등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5월 말 (사)문화다움과 계약을 체결해 총 9개월에 걸쳐 용역을 진행했다.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을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으로 정했다.

이어 ▲성숙하고 주체적인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로 변화하는 도시(시민성) ▲지역의 내발적인 문화력으로 성장하는 도시(내발성) ▲부평의 문화적 장소성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가 도시 전반으로 확장되는 도시(장소성) ▲문화소비 중심이 아닌 창조적 문화생산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창조성) ▲시민들의 다양한 연대를 통해 지역의 가치가 형성되는 도시(연대성)등을 문화도시 핵심 방향 및 가치로 삼았다.

구는 앞서 설명한 핵심 방향과 가치를 시민 주도 민관 거버넌스인 ‘문화두레’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도시 부평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계를 국가 지정 문화도시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본격 추진기(2021~2025년)’와 본 사업 이후의 ‘안정기(2026~2030년)’로 구분했다.

1단계(2021년)에서는 문화두레를 본격화하면서 시민 중심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2단계(2022~2023년)에서는 문화도시 공간 발굴 및 거점 구축, 문화도시 연계사업 본격 추진 등 문화생태계 및 문화적 장소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뉘었다.

본격 추진기의 마지막인 3단계(2024~2025년)에서는 창조적 문화산업의 토대를 형성하고, ‘부평 문화도시’를 선언하는 시기로 정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문화도시 안정기’에서는 부평의 음악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문화적 장소 기반 구축, 행·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부평구는 지난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국비를 포함한 총 190억 원의 예산으로 향후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국가 지정 문화도시 추진의 성과를 부평의 도시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바탕”이라며 “문화도시 부평의 지속성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